불교학 · 역사 연구 깊이 더할 총서 나왔다

대한불교진흥원, 대원불교학술총서 '첫 선'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불교학과 불교사 연구에 깊이를 더할 불교학술총서가 새롭게 발간됐다.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이한구, 이하 진흥원)은 최근 '대원불교학술총서' 1 · 2 · 3권을 잇달아 발간하며 첫 선을 보였다.

'대원불교학술총서'는 진흥원이 2020년부터 시작한 '대원불교 학술 · 콘텐츠 공모' 사업의 결과물들이다. '대원불교학술 · 콘텐츠 공모'는 불교를 오늘에 맞게 연구하는 개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발간된 대원불교학술총서 1권 〈한국불교통사〉 2권 〈불교의 무의식〉 3권 〈비구니 승가 설립의 역사〉는 1, 2기 선정작들이다.

김경집 한국전통문화대 외래교수가 저술한 1권 〈한국불교통사〉는 1700년 한국불교사를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냈다는 데 의미가 크다. 특히 왕조 구분을 통해 기술된 통상적인 불교사와 달리 △불교 전래와 발전 시대(삼국시대) △민족불교의 정립 시대(통일신라시대) △불교의 사회지평 확대 시대(고려시대) △민중신앙으로의 전환시대(조선시대) △개화 · 개혁의 불교 시대(근대불교) △현대화 · 대중화의 지향 시대(현대불교)로 구분해 불교사 전반을 기술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각각 시기에 불교계에 어떤 일이 있었고, 불교계가 당시 사회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를 조망할 수 있다. 현재진행형이어서 평가가 어려울 수 밖에 없는 현대불교시기도 동일한 비중으로 서술하고 있어, 현재 한국불교의 모습을 진단하고 미래를 모색하는 데 유용하다.

서술에 있어서도 정사 기록에 중점을 둬 객관성을 확보하고 각주에 근거를 꼼꼼히 남겨 연구자들이 참고할 수 있게 했다. 한글 서술을 원칙으로 해 가독성을 높인 점도 눈길을 끈다. 다만 인명과 고유명사, 독특한 불교 용어나 개념 등은 한문을 병기했다.



대한불교진흥원이 첫 선을 보인 대원불교학술총서 1 · 2 · 3권 〈한국불교통사〉, 〈불교의 무의식〉, 〈비구니 승가 설립의 역사〉

2020년 학술 · 콘텐츠 공모사업 1 · 2기 공모 당선작 첫 결과물

왕조사 틀서 벗어난 韓불교통사

경 · 율 속 찾은 비구니사 '눈길'

동화 · 만화 문화총서 발간 계획

티베트불교 연구자인 윌리엄 왈드론의 저서를 안성두 서울대 교수가 번역한 2권 〈불교의 무의식〉은 불교에서 중요한 주제인 마음(心)과 의식(識)에 대한 통찰을 담았다. 이 책은 유식학파에 의해 도입된 알라야식 개념이 어떤 인도불교 사상의 맥락에서 출현했는지 그 배경과 성립 과정을 살피고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고찰한다.

이를 통해 저자는 알라야식이 유식학파의 창의적 개념만은 아니며, 이 개념이 초기불교 아래 문제됐던 식이 가진 대립되는 인지적 앎과 윤회적 식이라는 맥락을 통합하려는 시도 중 가장 성공적 이론으로 평가한다.

3권 〈비구니 승가 설립의 역사〉는 메사추세츠 바레 불교연구센터 위원인 아날라요 스님의 저서로 김철 연세대 명예교수가 번역했다. 이 책은 7종의 초기불교 경전과 율장의 기록을 비교 분석해 비구니 승가가 성립되는 역사를 살펴보고, 비구니 승가의 설립을 둘러싼 여러 기록들의 진의를 추적한다.

이를 통해 아날라요 스님은 상좌부불교, 대승불교 등에 뿌리깊이 박혀있는 제도 · 관습적 차별을 반박한다. 저자는 제도 · 관습적 차별에 대해 쓰여 있는 경전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쓰였는지'를 규명하고 '경전 다시 읽기'를 통해 비구니에 대한 차별이 부처님의 가르침과 근본적으로 어긋나는 것이며 중생 제도와도 거리가 먼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진흥원은 대원불교학술총서 4권 〈에리히 프롬과 불교〉(박찬국 著), 5권 〈한국 선어록의 문예미학〉(전제강 著)을 근간할 예정이다. 또한, 콘텐츠 공모를 통해 선정된 동화와 만화를 선별해 '대원불교문화총서' 발간도 추진한다.

진흥원 관계자는 "학술총서를 통해 불교를 시대 언어로 연구한 저서와 번역서를 출간하는 것이 공모사업의 목적"이라며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읽을 수 있는 문화총서를 근간해 불교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려 한다"고 밝혔다.

'백지은니수능엄경' 닥나무 한지로 조성

보존과학센터 보존처리 완료

은니로 경전 필사한 6m 대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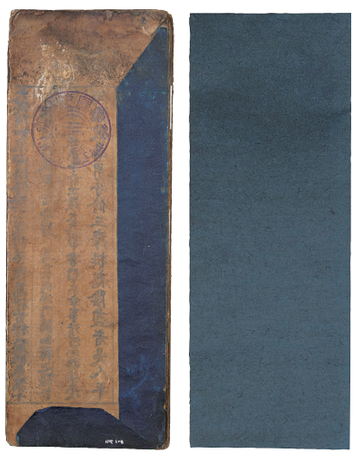
결실된 앞표지 등 전부 복원

손상과 결실이 심했던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백지은니수능엄경'이 보존처리를 통해 제모습을 찾았다. 보존처리과정에서 닥나무로 만든 한지로 조성된 사실도 새로 확인됐다.

국립문화재연구원 문화재보존과학센터(센터장 정영훈)는 "보물 '백지은니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 권10'(이하 백지은니수능엄경)의 보존처리를 완료했다"고 7월 7일 밝혔다.

보물 '백지은니수능엄경'은 〈능엄경(楞嚴經)〉 10권 중 마지막 권을 은니로 필사한 것이며, 현재 권 1~9는 전해지지 않는다. 경전의 뒷부분에 1356년(고려 공민왕 5) 이방한(李邦翰)이 죽은 어머니를 위하여 썼다는 간행 경위가 적혀 있어 필자와 연대가 명확하다. 가로 11.2㎝, 세로 30.5㎝의 크기이며, 57번 접은 첩의 형태로서 모두 펼쳤을 때 가로 길이가 6.3m에 달한다.

'백지은니수능엄경'은 1943년 보물 지정 당시에는 삼베로 만든 한지를 의미하는 '마지'가 포함된 '마지은니수능엄경'이었지만, 2010년 '하얀 종이'를 의미하는 '백지'가 포함된 지금의 이름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번 보존처리 과정에서 종이 섬유 분석을 통해 '백지' 중에서도 특히 닥나무로 제작한 한지로 만들었다는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다.


보물 '백지은니수능엄경'의 앞표지. 사진 왼쪽이 보존처리 전, 사진 오른쪽이 보존처리 후의 모습.

이 외에도 글자를 쓸 때 사용한 안료, 표지의 염색 재료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결과, 글자는 알려진 바와 같이 은(Ag)을 사용했으며, 글자의 검게 변색된 부분은 은과 황(S)이 결합하면서 변색되었다는 사실과 표지의 감색 염색재료로 쪽을 사용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문화재보존과학센터는 '백지은니수능엄경'의 손상부분을 최대한 원형을 살려 복원처리했다. 갈변과 찢김, 결실 등의 손상을 입은 본문 종이는 건 · 습식 세척 후 찢기고 결실된 부분을 보강했고, 대부분 결실된 상태인 앞표지는 쪽염색지로 복원했다. 은니 보상화문(寶相華文)이 있는 뒤표지는 마모되어 은색 선이 탈락하고, 이물질이 묻거나 부분적으로 결실되어 쪽 염색지로 결실된 부분을 보강하고 이물질을 제거했다.

본문과 표지에 사용된 은니는 종이에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저농도의 아교를 발랐으며, 종이 표면의 오염물은 탈이온수를 사용하여 제거했다.

0.1㎜부터 0.15㎜까지의 다양한 두께의 본문 종이는 찢어지거나 결실된 부분이 있어 보존처리하기 까다로웠으나 전통 한지를 두드려 두께를 맞추고 색 맞춤한 후 손상부위에 덧대는 방식으로 복원했다.

문화재보존과학센터는 "내년에 보존처리 내용과 연구 내용을 상세히 담은 보존처리 보고서를 발간할 것"이라며 "보존처리가 완료된 '백지은니수능엄경'은 소장처인 경북대 박물관에서 내년 중 전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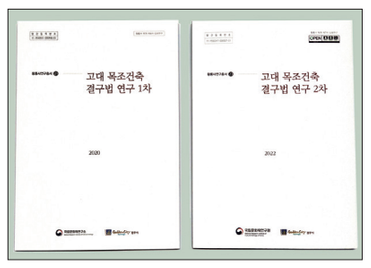
경주 월지 · 동궁서 찾은 고대 목조 결구법

국립문화재硏 보고서 발간

황룡사 복원에 학술적 도움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원장 김연수)은 "건축유적 복원정비의 기초자료 마련을 위해 동궁과 월지 출토 건축부재를 조사하고 그 특징을 정리해 〈고대 목조건축 결구법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7월 4일 밝혔다.

고대 건축유적에서 목부재는 꾸준히 출토되고 있지만 목부재에 담긴 고대인의 건설기술을 밝히려는 시도는 많지 않았다.



문화재청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 · 정비추진단의 주요 사업 일환으로 경주시와 함께 황룡사지 복원정비연구를 하고 있는 국립문화재연구원은 국립경주박물관이 가지고 있는 284건의 건축 목부재 중 대표성을 갖는 38건의 부재에 대해 실측조사를 했다. 이어서 이를 도면으로 작성하고, 부재별 재원과 특징을 정리하여 논고와 함께 보고서에 수록했다. 또한 각 부재의 추정복원도를 작성해 부재의 원래 모습과 쓰임에 관한 이해를 돕고자 했다.

국립문화재연구원은 "이번에 발간한 〈고대 목조건축 결구법 연구〉는 지금은 사라진 신라 최대 사찰인 황룡사의 건축물을 복원하기 위한 실마리를 찾고 황룡사 건설 당시 치목기술과 결구기술의 수준을 파악하는 데 학술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신성민 기자

정경포럼, 박문호 박사 초청 창립포럼

7월 16일 세계물포럼기념관

'과학과 불교의 만남' 주제로

불교의 눈으로 과학을 비판적으로 조명하는 포럼이 열린다.

정경포럼은 7월 16일 오후 1시30분 세계 물포럼기념관에서 '과학과 불교의 만남-과학적 주장은 사실일까'를 주제로 창립기념 포럼을 주최한다.

강연자로는 뇌과학자인 박문호 박사가 참석한다. 포럼 패널로는 이영우 충남대 명예교수, 박승환 세종석림과학기술협동조합이사장, 황성흠 국민대 교수, 김용수 변호사, 임노직 한국국학진흥원 수석연구위원, 최성달 작가가 참석한다.

박문호 박사는 경북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했으며 1991~97년 미국 텍사스 A&M대에 유학하면서 그 분야의 박사학위를 받았다. 하지만 오히려 천문학과 물리학, 뇌 과학 분야의 전문가로 통한다. '연구공간 수유+너머', 삼성경제연구원, 서울대, KAIST, BBS불교방송 등에서 우주와 자연, 뇌를 주제로 강연해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뇌, 생각의 출현〉은 그해 베스트 10에 오르기도 했다.

이번에 창립하는 정경포럼은 안동 보경사와 관음사에서 각각 10여 년 동안 꾸준히 불교를 공부해 온 정해학당과 원경학당의 회원들이 뜻을 모아 만든 비영리단체이다. (054)842-4080

신성민 기자



